

## 정책제안서

당신의 반평생을 함께할, 당신과 닮은 반려동물을 소개시켜드려요 - 사용자 조건 기반 유기동물 추천 플랫폼 개발 -		
정책명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입양 플랫폼 개발	
정책 키워드	매칭시스템, 유기동물, 입양, 사후관리	
정책목표	매칭 시스템을 통해 보호소 동물의 입양 대기 기간을 줄임으로써 보호소 내의 회전율과 입양률 증가	
제안자	팀명	Re;born
	팀원	박채린, 이현정, 최가온, 곽다현
	소속	충북대학교
	KDI(한국개발연구원)	차성훈 정책플랫폼팀 팀장, 임효지 연구원

### I

### 제안배경 및 문제인식

#### 1.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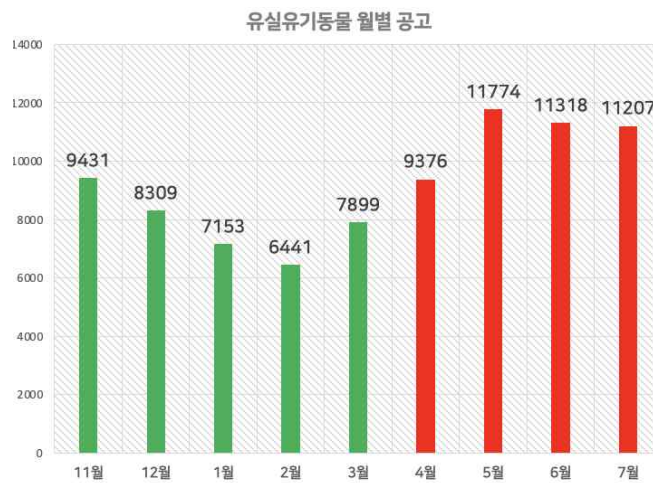
-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유기동물 수가 감소했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는 추세
  -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대책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유기동물의 수는 감소 (기간: 2021.11~2022.02)
    - 반려동물 등록제의 시행으로 유실된 동물의 반환이 빨라짐.
    - 마당 개 중성화 사업으로 마당 개의 무분별한 번식이 줄어든 영향도 있음.
    - 유기동물의 마릿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위탁업자와의 계약 해지 역시 증가하며 허위로 등록된 유기동물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됨.
  - 2022년 4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유기동물의 발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기동물의 발생 건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그림1> 참고).
-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유기동물 분양이 분양 저조할 경우 안락사 및 자연사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높음
  - 공고 기간 10일 내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안락사 가능성이 상당히 큼.
    - ※ 「동물보호법」 제17조, 시행령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 공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산 문제, 인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서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입양을 이끌어내야 함.

#### ○ 보호소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인한 높은 사망률

- 2021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 해 안락사 및 자연사로 사망하는 유기동물의 수는 48,548마리로 10마리 중 4마리가 사망
-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질병 관리 미흡으로 인한 폐사 등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됨.
-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를 감당하지 못해 시행되는 불법적인 안락사와 부적절한 처리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그림 1> 유실유기동물 월별 공고



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021.11.~2022.7.)

## 2. 문제 인식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등록제, 위탁업자의 계약 해지, 마당개 중성화 사업 등은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유기동물 발생 이후 이들을 빠르게 분양하여 새 삶을 찾아주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단기적 입양 증가가 아닌 건강한 입양 문화 구현을 통한 지속적 입양 증가(파양 감소)를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
  - 입양 수요자와 유기견의 효율적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칭 시스템에 구현

## II

## 정책제안

## 1. 멍냥맞선(유기동물과 입양 희망자 매칭 시스템) 운영 제안

## □ 시스템 개발 목적

- 사용자의 거주환경, 경제적 상황,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매칭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입양 동물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 시스템 알고리즘

-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K-nearest neighbor)’을 활용하여 강아지는 11가지, 고양이는 7가지의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문항을 개발해 사용자에게 응답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수집
  - ※ 강아지: 짖음, 입질/공격성, 배변습관, 활동성, 건강 유의도, 사람과의 사교성, 애정 필요도, 털 빠짐, 식탐, 필요한 거주 환경, 다른 동물과의 사교성
  - ※ 고양이: 잘 노는 적극성,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사람을 향한 공격성, 사교성, 고양이 간 사교성, 주변 청결 정도, 청결집착도
- 응답자의 응답 특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유기동물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매칭 실시

## □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교육 제공

- 멍냥맞선으로 매칭된 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사랑배움터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교육’과 교육 내용 기반 퀴즈를 제공함.

## □ 초기 필요 물품 제공

- 플랫폼을 통해 입양이 이뤄진 경우 입양 초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입양자의 플랫폼 이용 동기를 부여

## □ 홍보 방안

- 바이럴 마케팅 요소로 ‘나와 닮은 동물 찾기’ 등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한 흥미 요소 기능을 추가하고 SNS 링크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함.

## □ 정책적 지원 요인

- (데이터 구축) 플랫폼 운영을 위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특성 값을 입력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유기동물의 경우 믹스 품종이 많아 특성 값 파악이 매우 중요함.

- (인력 충원) 보호소의 인력난은 꾸준히 문제되어 왔기에 전담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대학교 봉사 동아리,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등 많은 인력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
-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 대학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한 재능 기부 봉사 혹은 일반 봉사, 시민 자원봉사를 통해 보호 동물의 정보를 얻거나 입양 홍보를 위한 미디어를 제작하는 등 부족한 인력을 보충

#### □ 고양이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플랫폼 제공

- 고양이의 경우 개체 특성상 보호소보다는 개인이 구조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많음.
- 보호소만이 멍냥맞선을 통해 입양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소 외 개인 임시보호자의 입양 홍보 또한 멍냥맞선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플랫폼 형식으로 개발 및 지원하는 경우 수요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

<그림 2> 멍냥맞선 플랫폼 시안



## 2. 멍냥 시리즈(유기동물 매칭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안

### □ 운영 목적

- 멍냥맛선이 온라인 기반 유기동물 매칭 프로그램인 반면, 멍냥시리즈는 온오프라인 병행 활동을 병행하여 사후관리로 파양을 줄이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건전한 문화 형성에 일조

### □ 운영 방식

- (오프라인) 도심 외곽에 위치한 폐건물 및 공터를 활용하여 ‘멍냥 한마당’이라는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고 반려인 간 소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멍냥클래스’를 통해 수제 간식 만들기, 행동교정, 체육대회 등의 로컬 아카데미를 제공함
  - 이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러 지역 활동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됨.
- (온라인) 플랫폼 내 ‘멍냥일기’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입양자가 2주에 1번씩 적어도 3개월 간 입양 후 근황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도록 장려하고 서로의 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함.
  - 가장 많이 읽은 일기 등에게 사료 제공 등의 인센티브 구현 필요
  - 플랫폼 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멍냥토크’를 마련하여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구매) 플랫폼 내 ‘멍냥마켓’에서 반려용품 공동구매 및 중고거래를 통해 사용자들의 초기 물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플랫폼 이용을 유도함.

## III

###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멍냥맛선’은 모범적인 사회적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 사회적 가치

- ‘멍냥맛선’이라는 플랫폼의 사회적 목적은 유기동물 안락사 감소, 생명존중문화 조성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임.
- 지역 외곽을 활용한 로컬 아카데미 등을 포함한 ‘멍냥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멍냥한마당’의 체계가 갖추어져 상설화가 가능해진다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비즈니스 모델

- 입양희망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후원자, 광고주, 프로그램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 라이선스, 후원, 굿즈 및 브랜딩, 광고, ‘멍냥한마당’ 프로그램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민주적 의사결정

- ‘멍냥맞선’은 수직적 의사결정이 아닌 자원봉사자, 정부 관계자, 개인 임시보호자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함.
- ‘멍냥맞선’은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나가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